

##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자 (렘 15:16)

### I. [지난 메세지] 빛 되신 주님, 겸손으로의 초대 (눅 2:8-12)

- A. 예수님께서서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가진 채로 이 땅에 빛으로 겸손히 임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기를 구하되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겸손을 부으심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 (눅 2:8-12)**

### II.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 A.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렘 9:1)”로 알려져 있으며,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인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이다 (BC 627-586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나이에 부르셨으며 (1:6절), 그의 입술을 통해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과 (렘 1-29장)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다 (렘 30-33장).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렘 1:9-10)**

- B. 그는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며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드물게도 당시 유다의 암울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 또한 잘 기록하고 있다.

**2 ...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렘 1:2-3)**

7 ...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sup>8</sup>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렘 20:7-8)

- C.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는 2가지 대표적인 죄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로서 힌놈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렘 7:30-31) 성전에 우상을 두고 바알 신을 숭배했다 (렘 19:4-5). 둘째는 음행으로 도덕적 타락이 넘치고 있었고 깨어진 혼인 관계가 많았다 (렘 5:7-8). 또한 왕들은 주변국들(애굽, 바벨론)을 의지하여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sup>30</sup> ... 유다 자손이 ...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sup>31</sup>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암몬 신인 몰렉에게 제사 드리던 곳, 왕하 23:10, 므낫세 왕 시작, 레 18:21: 20:2-5에서 금하고 있음)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 (렘 7:30-31)

- D. 예레미야는 초기에는 평화로운 시기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말하며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서 (렘 4:6-7) 미움을 받고, 이후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건질 것을 예언해서 (렘 27:6-8) 변절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재난과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유다 땅 가운데 선포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렘 31:31-33).

<sup>11</sup>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sup>12</sup>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sup>13</sup>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 III.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자

- A.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이었으며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에, 그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 33:10; 느 8:8).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렘 1:4-10), 자라면서 제사장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예언을 유다에 선포하고 전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

<sup>8</sup>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 <sup>10</sup>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신 33:8-10)

- B.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험난한 삶에 대해 주로 얘기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누린 즐거움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지 아는 인물이었다 (비교. 시 119:103). 이 말씀은 아마도 그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찾아낸 율법책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왕하 22:13).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KJV 흠정역,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렘 15:16)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 C.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일인 느부갓네살에 의한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 사건을 유다에 머물면서 예언하고 목격한 예레미야의 삶은, 어찌보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힌트를 얻을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는 어둠이 오기 전인 마지막 평화의 때(요시아 왕)에 예언을 시작해서 바벨론의 침공의 끝까지 살아서 예언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3차 갈릴리 사역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리더십과의 대립)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사람들, 특히 리더들과의 충돌이 심했다 (마 16:14).

13 예수께서 ...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마 16:13-14)

- D.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가 사람들로 부터 조롱받음을 탄원하는 장면의 앞 뒤 구절에는 사실 예레미야가 말씀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렘 5:14; 23:29)로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를 권유하시므로, 즉 원문인 "속이셨으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에 마음이 녹아서 순종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비교. 계 10:10)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흠정역, 속이셨으니)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 20:7-9)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 14 ... 여호와께서 ...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예레미야)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렘 5:14)

- E. 우리는 예레미야가 40년 간 예언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던 힘이 그 안에 불타고 있던 말씀의 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던 순간조차 (렘 20:14-18), 동시에 그는 여호와께 아뢰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그 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안에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던 말씀의 힘이었다.

11 ...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 12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렘 20:11-13)

- F.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시즌을 한 번만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예레미야와 같이 계속해서 심령에서 불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아가서는 솔라미 여인의 신앙 여정의 초기뿐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향해 예수님을 향한 불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 1:2-3)

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 (아 8:6-7)

- G.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도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며,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요한을 향한 천사의 명령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다 (계 10:9-10).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달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파도와 함께하는 힘이 된다.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 3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겔 2:8-3:3)

- H.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호 4:6),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암 8:11). 지금 시대는 말씀의 불을 가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일으켜야 하는 때이다.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 (호 4:6)

- I.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 제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즐거움을 부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존하고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의 모든 파도를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의 불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